주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1)*

— 12와 14 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

안대현**

요약

이 글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주본『화엄경』의 12와 14 위치 및 51과 55 위치의 점토들을 해독하고, 해독 결과를 바탕으로 12와 14 위치의 점토들 사이에 '동형성(同形性)'이 있고 51과 55 위치의 점토들 사이에 '대칭성(對稱性)'이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와 14 위치 점토들의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 점토들의 대칭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고, 이러한 동형성과 대칭성은 점토석독구결의 체계성과 당시의 수준 높은 문법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치(모양)	해독 결과	위치(모양)	해독 결과
12(·)	ㄱ	14(·)	尸
12(··)	ㅎㄱ	14(··)	ㅎ尸
12(:)	ㅅㄱ	14(:)	ㅅ尸
12(·.)	ㅁㄱ	14(·.)	ㅁ尸
12(-)	ㄴㄱ	14(-)	ㄴ尸
12(|)	ㅎㅁㄱ	14(|)	ㅎㅁ尸

위치(모양)	해독 결과	위치(모양)	해독 결과
51(·)	亻	55(·)	丨
51(.·)	ㅎ亻	55(·.)	ㅎ丨
51(·.)	ㄴ亻	55(.·)	ㄴ丨
51(·/)	ㅋㅌ亻	55(\·)	ㅋㅌ丨

*핵심어: 주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토석독구결, 동형성, 대칭성

---

* 이 글은 국어학회 제34회 전국학술대회(2007년 12월 20~22일, 지지향 호텔)에서 발표한 원고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박사수료

1. 머리말

2000년에 점토석독구결(點吐釋讀口訣) 자료가 처음 발견된 후, 그 해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권5와 권8의 점토석독구결에 대해서는 장경준(2002 · 2003 · 2005 ㄱ)과 서민욱(2005) 등이, 주본(周本) 『화엄경(華嚴經)』 권6과 권36과 권57의 점토석독구결에 대해서는 이승재(2001 · 2003)과 박진호(2003 · 2004) 등이, 진본(晉本) 『화엄경』 권20의 점토석독구결에 대해서는 박진호(2006) 등이 대체적인 윤곽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주본 『화엄경』의 점토는 『유가사지론』의 점토에 비해 뚜렷하지 못하고 대응되는 자토가 기입된 경우가 없어서 해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1] 박진호(2004)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해독된 주본 『화엄경』의 점토들을 점도(點圖)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점토 위치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단점

·ㅅ	·ㄱ		·尸	ㅅㄱ
·丁	·ㅋ		·支	七
		·ㄱ	·口	ㅂ矢
乙	·(ㅅ)ㅔ	·ㅅ	·尸	ㅡ
·分	·分	·十		·丨

1) 주본 『화엄경』 권31에는 '寶'자 오른쪽에 자토 '勿'이 각필로 기입된 곳이 여럿 있으나 점토와 대응되지는 않는다. 한편, 주본 『화엄경』 권34에는 12(:)이 현토된 '知'자 오른쪽에 '恨'자가 각필로 기입된 곳이 있다.

2) 23(|)은 박진호(2004)에서 '氵(ㅅ)'으로 해독하였으나, 박진호(2003)을 따라 'ㄴ氵'로 정리하였다. 이후 각필구결 연구모임에서 52(/)을 '氵ㅅ'으로 해독하게 되어 23(|)이 'ㄴ氵'에 대응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수평쌍점, 수직쌍점

사향쌍점, 역사향쌍점

수평선, 수직선

사선, 역사선

눈썹

느낌표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李丞宰 外(2006ㄱ·ㄴ)에서는 주본『화엄경』권6·권36·권57의 해독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해독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해독된 점토들이 적지 않다.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에 대한 앞선 연구들은 선구적이라는 점 때문에 한계도 지닌다. 권별로만 해독이 이루어졌고, 해독의 결과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해독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더 나은 해독을 위해서는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 자료 전체에 대한 거시적 조망과 개별 점토에 대한 미시적 고찰이 함께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 자료인 권6·권22·권31·권34·권36·권57을 대상으로 12와 14 위치 및 51과 55 위치의 점토들을 해독하고,[3] 해독 결과를 바탕으로 12와 14 위치 및 51과 55 위치의 점토들 사이의 체계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12와 14 위치의 점토들의 해독

2.1. 12(丨)과 14(丨)의 해독

12(丨)과 14(丨)은 앞선 연구에서 각각 'ㅎㄱ'과 'ㅎ尸'로 해독되었던 점토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독은 12(··)과 14(··)이 또한 'ㅎㄱ'과 'ㅎ尸'로 해독되었다는 점에서 정밀한 해독이라고 하기 어렵다. 14(··)은 부처나 보살 등 주체높임의 대상이 되는 이가 말하는 장면 바로 앞에서 '言' 또는 '曰' 뒤에 현토되므로, 의심할 나위 없이 'ㅎ尸'에 대응된다. 12(··)도 전반적으로 'ㅎㄱ'을 나타내는 점토임이 확실하다.

---

3) 해독 과정에서 각필구결 연구모임의 여러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 석독구결사전의 편찬을 위해 입력한 석독구결 분절자료, 그리고 박진호 교수가 개발한 검색프로그램 'UniConc'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12(|)과 14(|)도 주체높임의 의미를 갖지만, 12(··)과 14(··)의 문맥과 다른 문맥에 사용된다. 우선 14(|)과 14(··)을 비교하면, '所+동사'에는 (1)처럼 14(|)만 나타나고 14(··)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토석독구결의 예인 (2)에서 보듯 '所' 앞에 'ㅎㅁㅁ'만 나타나고 'ㅎㅁ'이 나타나지 않음을 고려하면, 14(|)은 (1′)처럼 'ㅎㅁㅁ'로 해독할 수 있다.

(1) ㄱ. 一切諸[33(·)]佛[35(·)]之所攝取[14(|),14(!),41(··),52(·)] <주본화엄31, 07:09>
ㄴ. 常[24(|)]勤[25(·)]修習一切菩薩[44(·)]所行[14(|),25(·)]事業[41(·),51(.·)] <주본화엄34, 01:18-19>
ㄷ. 一切如來[24(|)]所共[25(·)]灌頂[14(|),51(/·)] <주본화엄57, 09:06>

(1′) ㄱ. 一切 諸ㄱ 佛ᄉᆞ{之} 攝取(ㅅ)ㅎㅁㅁ 所ㅣㅁㅅㄹㅅㅅ
ㄴ. 常ㅣ 勤ㅌ 一切 菩薩ㅁ 行(ㅅ)ㅎㅁㅁ 所ㅌ 事業ㄹ 修習(ㅅ)ㅎㅅ
ㄷ. 一切 如來ㅣ 共ㅌ 灌頂(ㅅ)ㅎㅁㅁ 所ㅣㅅ

(2) ㄱ. 一切 諸ㄱ 佛ᄉᆞ 護念ㅅㅎㅁㅁ 所ㅣㄱㅅㅆ{故}ㅣㅅ <화소35, 26:13-19>
ㄴ. 若 殊勝決定解ㄹ 得ㅂㅁㅅㄱ 則ᄎ 諸ㄱ 佛ᄉᆞ 護念ㅅㅎㅁㅁ 所ㅣㅁ{爲}ㅅㄱㅅㅂㅎㅅ <화엄14, 11:03>


[그림302] 예문(1ㄷ)


[그림303] 예문(3ㄴ)


[그림304] 예문(4ㄱ)

12(|)과 12(··)도 마찬가지다. 다만 12(··)은 '所+형용사'에 현토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3ㄱ)처럼 '有'가 형용사인 경우이다. '有'가 '잇'로 훈독되는 타동사일 때는 (3ㄴ)처럼 12(|)이 현토된다. 따라서 (3′)와 같이 12(··)은 'ㅎㄱ'으로, 12(|)은 'ㅎㅁㄱ'으로 해독할 수 있다.

(3) ㄱ. 三世[25(·)]一切刹[53(·)]所有[33(··),12(··),25(·)]衆[33(·)]導師[33(·)]種種[25(·)]名号殊[12(··),41(·)]爲[24(\)]說[34(ㅣ),43(ㅣ)]皆[25(·)]令見[24(ㅣ),42(·),55(\)] <주본화엄06, 17:18>

ㄴ. 三世[25(·)]諸[33(·)]佛[35(·)]所有[33(/),12(ㅣ),25(·)]願[41(·)]菩提樹下[53(·)]皆[25(·)]宣說[13(:)] <주본화엄06, 03:23>

(3′) ㄱ. 三世ㄷ 一切 刹ㅅ 有ナ(ハ)ㅎㄱ 所ㄷ 衆ㄱ 導師ㄱ 種種ㄷ 名号殊(ソ)ㅎㄱㄹ 爲ㅁ 說ㄴㅈ 皆ㄷ 見ㅂ 令ㅂxㅣ

ㄴ. 三世ㄷ 諸ㄱ 佛ㅸ {有}ㅐㅎㅁㄱ 所ㄷ 願ㄹ 菩提樹 下(ㄴ)ㅓ 皆ㄷ 宣說xㅁ

12(ㅣ)이 'ㅎㅁㄱ'에 대응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4)를 들 수 있다. 12(ㅣ)은 '善(哉)' 감탄문에서 33(\)과 함께 사용되는데, (5)와 같이 자토석독구결에 'ㄷㄹㄱㅓ'가 나타난다.

(4) ㄱ. 善哉[12(ㅣ),33(\)]佛子[11(·)]當[23(:)]承佛[35(·)]神力[41(·),24(ㅣ),53(i),23(:)]而[45(·)]爲[24(\)]演說[23(/),53(ㅣ·)] <주본화엄34, 05:19-20>

ㄴ. 善哉[12(ㅣ),33(\)]廣大智[12(··),11(\.)]願[15(·)]說入諸[33(·)]地[53(·),14(·),21(·)] <주본화엄34, 07:08>

(4′) ㄱ. 善{哉)ㅎㅁㄱㅓ 佛子ㅅ 當ㅅ 佛ㅸ 神力ㄹ 承ㅂ白ㄴㅅ 而ᄆ 爲ㅁ 演說(ソ)ㅁㅅㅎ立

ㄴ. 善{哉)ㅎㅁㄱㅓ 廣大 智(ㅂ)ㅎㄱxㅅ 願入ㄱ 諸ㄱ 地ㅓ 入(ソ)ᄑㅜ

(5) 善ㄷㄹㄱㅓ 大事ㄷ 因緣ᄆ 故ノソニロトㄱㅂㄱㅜソㄴ<구인上, 03:20-21>

2.2. 12(-)과 12(!)의 해독

2.1에서 12(ㅣ)을 'ㅎㅁㄱ'으로 해독하는 근거의 하나로 '善(哉)' 감탄문을 들었다. 그런데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에서는 '善(哉)' 감탄문에

12(ㅣ) 외에 (6)과 같이 12(-)과 12(!)도 사용된다.

(6) ㄱ. 善哉[12(-),33(\)]善哉金剛藏[11(·)]乃[43(·)]能[24(·)]入是[33(·)]菩薩[44(·)]大智慧光明三昧[53(·)24(/)] <주본화엄34, 02:20-22>

ㄴ. 善哉[12(!)]佛子[11(·)]願[15(·)]演說趣入菩提[53(·),25(ㅣ)]諸[33(·)]地[25(·)]行[41(·),23(/),53(ㅣ·)] <주본화엄34, 06:22>

ㄷ. 善[24(·)]來[12(!),33(\)]世尊[11(·)]善[24(·)]來[12(!),33(\)]善逝[11(·)]善來如來應正等覺[11(·)]唯[24(·)]見哀愍[41(·ㅣ),43(ㅣ)]處此宮殿[53(·),23(/),53(ㅣ·),34(·),54(·.)] <주본화엄22, 19:14-15>

ㄹ. 菩薩[33(·)]聞此[24(ㅣ)]勝地[25(·)]行[41(·),34(·),12(:)]於法[53(·)]解悟[43(ㅣ)]心[42(ㅣ)]歡喜[23(ㅣ)]空中[53(·)]雨華[41(·),24(ㅣ),34(·)]讚歎[23(ㅣ)]言[34(-),21(ㅣ)]善[12(!)]哉[33(\)]大士[24(ㅣ),14(··)]金剛藏[11(·),52(.·)] <주본화엄36, 07:03-04>

(6′) ㄱ. 善{哉}ナ ㄱ ㅓ 善{哉}(ナ ㄱ ㅓ) 金剛藏ㅣ 乃(ン)ㅓ 能ㅊ 是ㄱ 菩薩尸 大智慧光明三昧十 入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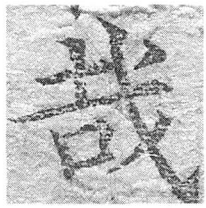
ㄴ. 善{哉}ㅀㅁㄱ(ㅓ) 佛子ㅣ 願ㅅㄱ 菩提十 趣入(ン)ㅎㅊ 諸ㄱ 地ヒ 行乙 演說(ン)ロハㅀ立

ㄷ. 善ㅊ 來ㅀㅁㄱ ㅓ 世尊ㅣ 善ㅊ 來ㅀㅁㄱ ㅓ 善逝ㅣ 善(ㅊ) 來(ㅀㅁㄱ ㅓ) 如來應正等覺ㅣ 唯ㅊ 哀愍ノ尸入乙 見(ㅋ)ホ 此 宮殿十 處(ン)ロハㅀ立(ン)ロヒ丨

ㄹ. 菩薩ㄱ {此}リ 勝地ヒ 行乙 聞ロンㄱ {於}法(ㅋ)十 解悟(ンㅋ)ホ 心ㅎ 歡喜ンㅋ 空中(ㅋ)十 華乙 雨リロ 讚歎ンㅋ 言白ナ尸丁 善ㅀㅁㄱ{哉}ㅓ 大士リㅀ尸 金剛藏ㅣ(ン)ㅀカ

(7) ㄱ. 善ナ ㄱ {哉}ㅓ 佛子ㅣ 汝ㄱ 今ンㄱ 饒益ノ尸 所 多カ 安隱ノ尸 所ㅋ 多ナ ㄱ 入乙ㅟ 世間乙 哀愍ンㅋ 天人乙 利樂ンㅋ ン{爲欲}人 是 如ㅊンヒヒ 義乙 問ムナ ㄱ 丁 <화엄14, 02:10-12>

ㄴ. 善ㅀㅁㄱ{哉}ㅓ 仁者ㅣ 諦リ 聽ㅀㅋㅎ{應}ヒンナ丨 <화엄14, 09:02-03>


[그림305] 예문(6ㄱ)


[그림306] 예문(6ㄷ)

박진호(2004)에서는 12(-)을 'xㄱ'으로, 12(!)를 'ㅎㄱ'으로 해독하였다. 그러나 (7)의 자토석독구결과 대응시켜 보면 12(-)은 'ㅏㄱ'으로, 12(!)는 'ㅎㅁㄱ'으로 해독할 수 있다.[4)]

주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12(-)을 'ㅏㄱ'으로 해독하는 방안은 (8)과 같은 예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8) ㄱ. 地[25(·)]行亦[42(\)]如是[24(·),34(·),12(-)]難[43(·)]說[22(·)]難[43(·)]可受[24(\),25(·),22(·),12(-),51(/·)] <주본화엄34, 08:13>

ㄴ. 此諸[33(·)]凡夫[33(·)]愚癡[43(|)]無智[34(·),12(-)]甚[24(|),43(·)]爲可愍[25(·),12(:),31(|·),55(\·)] <주본화엄36, 09:14>

(8′) ㄱ. 地ㄷ 行 亦ㄲ 是 如ᄒᆞ(ㅅ)ㅁㅏㄱ 難(ㅣ)ㅎ 說(ㅅ)ᄒᆞ 難(ㅣ)ㅎ 受ㅎㅁ(ㅎ){可}ㄷ(ㅅ)ᄒᆞ(ㅅ)ㅏㄱㅣㄱ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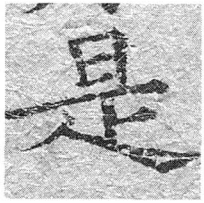
ㄴ. 此 諸ㄱ 凡夫ㄱ 愚癡(ㅅㆍ)ᄉᆞ 智 無ㅁㅏㄱ 甚ㅣㅎ {爲}愍(ㅅㅎ){可}ㄷㅅㄱ xㅎᆞㆍㄷㅣ

(9) ㄱ. 彼ㄱ{之} 功德ㄱ 邊際 無ㅁㅏㄱ 稱量ㅅㆍㅎㅎ可ㄷㅅㄱ 不ᄋᆞᄀ與ㄷㅅㆍᄉᆞ 等ㆍㅅㆍᄉᆞ 無ㄷㅏㅣ <화엄14, 09:06>

ㄴ. 善男子ㆍ 若 得ㆍᄉᆞ 是 金光明經ㄹ 聽聞ㅅ白ㅁㅏㄱ 一切 菩薩ㄱ 阿耨多羅三藐三菩提ㆍㅏㄱ 退 不ᄉᆞㅅㄷㅎㄷㅣ <금광3, 13:23-24>

---

4) 2.1에서 살펴본 'ㅎㅎㄱㅔ'는 'ㅎㅁㄱㅔ'의 'ㅁ'가 'ㅎ' 뒤에서 'ㅎ'로 약화된 형태로 추정된다. 자토석독구결의 'ㅎ' 뒤에서 /ㄱ/가 /ㅇ/로 약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박진호(1998: 160-161)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307] 예문(8ㄱ)


[그림308] 예문(10ㄱ)


[그림309] 예문(12ㄱ)

주본『화엄경』에는 (8)처럼 34(·)과 12(-)이 함께 기입된 예가 여럿 있는데, 이들은 연결어미 'ㅁㄱ'에 선어말어미가 통합한 형태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ㅁㅅㅎㄱ'과 (9)의 'ㅁㅏㄱ'이 있는데, 12(-)은 주체높임의 의미가 없으므로 'ㅏㄱ'으로 해독된다.

12(-)은 (10)처럼 조건문에 사용된 예도 많이 있다. 南豊鉉(1996: 11-12)에서 밝혔듯이, 자토석독구결에는 (11)처럼 동명사어미 'ㄱ'과 보조사 'ㄱ'의 통합 형태가 조건의 의미로 사용된 예가 나타난다. 특히 (11ㄱ)의 'ㅏㄱㄱ'은 (10)의 '12(-),33(·)'에 정확히 대응된다.[5]

(10) ㄱ. 見佛[35(·)]眞實[25(·)]體[41(·),53(i),12(-),33(·)]則[24(·)]悟甚深法[41(·),31(:),21(·|)]普[24(|)]觀於法界[41(·),23(/)]隨願[41(|·),24(\)]而[45(·)]受身[41(·),52(.·)] <주본화엄06, 18:12>

ㄴ. 若[25(·)]人[24(|)]有信解[11(·)]及[25(·)]以[34(|)]諸[33(·)]大願[11(·),41(:),33(/),51(·)]具足深智慧[41(·),12(-),33(·)]通達一切法[41(·),31(:),51(·/)] <주본화엄06, 20:03>

ㄷ. 佛子[34(|)]菩薩[24(|)]住此焰慧地[53(·),24(/),12(-),33(·)]則[24(·)]能[24(·)]以十[44(·)]種[25(·)]智[41(·),34(|)]成熟法[41(·),23(|),45(-)]故[24(/)]得彼內法[41(·),43(|)]生如來[44(·)]家[53(·),55(/)] <주

5) 李丞宰 外(2006ㄱ)은 (10ㄷ)을 '33(·),12(-)'의 순서로 'ㄱxㄱ'으로 해독하였고, 李丞宰 外(2006ㄴ)은 (10ㄱ)을 '12(-),53(i),33(·)'의 순서로 'xㄱxㅏㄱ'으로 해독하였다. 이는 조건문의 '-ㄱㅣㅏㄱ'에 이끌린 결과로 보인다.

본화엄36, 01:23-24>

(10′) ㄱ. 佛ᄇᆞ 眞實ᄒᆡ 體ᄋᆞᆯ 見白ᄒᆞᄉᆞᄀᆞᆫᄃᆞ 則ᄎᆞ 甚深法ᄋᆞᆯ 悟ᄒᆞᅀᅡ ᄆᆞᆫ 普ᄅᆡ {於}法界ᄋᆞᆯ 觀(ᄉᆞ)ᄆᆞᄒᆞᆫ 願ᄂᆞᆯ ᄉᆞᆷᄋᆞᆯ 隨ᄒᆞ 而ᄆᆞᆫ 身ᄋᆞᆯ 受ᄒᆞᄉᆞᆼ

ㄴ. 若ᄒᆡ 人ᄅᆡ 信解ᄒᆞ 及ᄒᆡ 以ᄒᆞ 諸ᄀᆡ 大願ᄒᆞᄂᆞᆺᄉᆞᆼᄋᆞᆯ {有}ᄂᆞᆺᄉᆞᆼ 深智慧ᄋᆞᆯ 具足(ᄉᆞ)ᄂᆞᄀᆞᆫᄃᆞ 一切 法ᄋᆞᆯ 通達ᄒᆞᅀᅡ ᄒᆞᄆᆡᄉᆞᆼ

ㄷ. 佛子ᄒᆞ 菩薩ᄅᆡ 此 焰慧地ᄒᆞᆫ 住(ᄉᆞ)ᄒᆞᄂᆞᆺᄀᆞᆫᄃᆞ 則ᄎᆞ 能ᄎᆞ 十ᄑᆞ 種ᄒᆡ 智ᄋᆞᆯ 以ᄒᆞ 法ᄋᆞᆯ 成熟ᄉᆞᄒᆞᄀᆞ 入ᄆᆞᆫ 故ᄒᆞᆫ 彼 內法ᄋᆞᆯ 得(ᄒᆞ)ᄉᆞᆷ 如來ᄑᆞ 家ᄒᆞᆫ 生(ᄉᆞ)ᄂᆞᄒᆞᄒᆡᄂᆡ

(11) ㄱ. 若 一切 衆ᄅᆡ 生 善根ᄋᆞᆯ 種ᄒᆞᆫᄑᆞ 未ᄅᆡᄒᆞ 善根ᄋᆞᆯ 成熟 未ᄅᆡᄒᆞ 諸佛ᄋᆞᆯ 親近 未ᄅᆡᄒᆞᄉᆞᆼᄂᆞᄀᆞᆫᄃᆞ 得ᄒᆞᄉᆞᆷ 是 金光明經ᄋᆞᆯ 聽聞 不ᄒᆞᄉᆞᆼᄂᆞᅀᅥᄀᆞ 入ᄆᆞᆫᄂᆞᆫ <금광3, 14:01-03>

ㄴ. 若 三摩地ᄋᆞᆯ 得ᄒᆞᄀᆞᆫ 而ᄀᆡ 圓滿 未ᄅᆡᄒᆞ 亦 自在 未ᄅᆡᄉᆞᆼᄒᆞᄉᆞᆼᄀᆞᆫ 彼ᄀᆡ 或 止相ᄋᆞᆯ 思惟ᄉᆞᆼᄒᆞ 或 擧相ᄋᆞᆯ 思惟ᄉᆞᆼᄒᆞ 或 捨相ᄋᆞᆯ 思惟ᄉᆞᆼᄒᆞᄉᆞᆼᄉᆞᆷ <유가20, 24:06-08>

한편, 12(!)는 (12)처럼 51(·/)이나 55(\·)과 함께 기입된 예들이 많은데, 이들은 (13)의 'ㄴᆞㅁᄀᆞᄅᆡᄒᆞᄉᆞᆷᄀᆞᆺ', 'ㄴᆞㅁᄀᆞᄅᆡᄒᆞᄉᆞᆷᄂᆡ'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51(·/)과 55(\·)의 해독은 3.1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ㄱ. 心[53(·)]無下劣[52(·)]及[25(·)]勞疲[14(·),25(·),24(|),45(!)]佛子[33(·)]善[24(·)]入斯方便[12(!),51(·/)] <주본화엄06, 13:01>

ㄴ. 自在天王[33(·)]大[24(|)]欣慶[23(|)]雨摩尼寶[41(·),24(|),43(|)]供養佛[41(·),23(|)]讚言[21(|)]佛[33(·)]爲我[23(-),43(·)]出興[43(-)]演說第一功德[25(·)]行[41(·),23(/),12(!),24(|),55(\·)] <주본화엄36, 01: 08-09>

(12′) ㄱ. 心ᄒᆞᆫ 下劣ᄉᆞᆼᄀᆞᆺ 及ᄒᆡ 勞疲ᄑᆞ 無ᄒᆡᄅᆡ(ᄉᆞ)ᄒᆞᄑᆞ入ᄆᆞᆫ 佛子ᄀᆡ 善ᄎᆞ {斯}(ᄅᆡ) 方便(ᄒᆞᆫ) 入(ᄉᆞ)ᄒᆞᄆᆞᄀᆞ(ᄅᆡ)ᄒᆞᄉᆞᆷᄀᆞᆺ

ㄴ. 自在天王ᄀᆡ 大ᄅᆡ 欣慶ᄉᆞᄒᆞ 摩尼寶ᄋᆞᆯ 雨ᄅᆡ(ᄒᆞ)ᄉᆞᆷ 佛ᄋᆞᆯ 供養ᄉᆞᄒᆞ 讚言(ᄉᆞ)ᄂᆞᄑᆞᄃᆞ 佛ᄀᆡ 我ᄒᆞᄒᆞ {爲}ᄒᆞ 出興(ᄉᆞ)ᄒᆞᄒᆞ 第一 功德ᄒᆡ 行ᄋᆞᆯ 演說(ᄉᆞ)ᄆᆞᄒᆞᄒᆞᄆᆞᄀᆞᄅᆡᄒᆞᄉᆞᆷᄂᆡ

(13) 二法見乙 過ᄂᆞᆫᄀᆞᆺᄉᆞᆷ 故ᄂᆞᆫ 是 故ᄆᆞᆫ 寂靜乙 證ᄒᆞᄂᆞᆫᄆᆞᄀᆞᄆᆡᄒᆞᄉᆞᆫᄃᆞᆫ
世尊ᄋᆞᆫ 智ᄀᆞ 一味ᄆᆡᄂᆞᆫᄒᆞ 淨品ᄋᆞ 不淨品ᄋᆞᄂᆞᆫᄉᆞᆫ 界乙 分別 不ᄒᆞᄂᆞᆫ
ᄀᆞᆺᄉᆞᆷ 故ᄂᆞᆫ 無上淸淨乙 獲ᄒᆞᄂᆞᆫᄆᆞᄀᆞᄆᆡᄒᆞᄉᆞᆫᄃᆡ <금광3, 13:08-10>

2.3. 14(.·)과 14(·|)의 해독

주본『화엄경』의 14(.·)은 앞선 연구에서 'x尸'로만 해독되었다. 이는 문맥만으로는 '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14(.·)이 사용된 (14)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인『화엄경소』의 (15)와 같은 구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5)는 '是乙/{是}ㅣ乙 名下'로 시작되는 문장과 거의 동일한데,[6] '名下' 대신 '{爲}ᄂᆞᆫᄆᆞ尸'이 사용되었다.[7] 진본『화엄경』의 14(·.)도 이 구문에 사용되어 박진호(2006)에서 'ᄂᆞᆫᄆᆞ尸'로 해독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독된 점토는 대부분 'ᄂᆞᆫ'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해독한 후 'ᄂᆞᆫ'가 필요하면 보충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주본『화엄경』의 14(.·)을 'ᄆᆞ尸'로 해독하기로 한다.

(14) 佛子[34(|)]是[41(·)]爲[14(.·)]菩薩摩訶薩[44(·)]第九[25(·)]無著無縛解脫心迴向[11(·),31(··),55(.·)] <주본화엄31, 16:14-15>

(14′) 佛子ᄋᆞ 是乙 {爲}(ᄂᆞᆫ)ᄆᆞ尸 菩薩摩訶薩尸 九 第ᄀᆡ 無著無縛解脫心迴向ᄉᆞᄂᆞᆫᄒᆞᄂᆞᆫᄃᆞ

(15) ㄱ. {是}ㅣ乙 {爲}ᄂᆞᆫᄆᆞ尸 菩薩摩訶薩尸 六ᄒᆞ 第ᄀᆡ 施藏ᄉᆞᄂᆞᆫᄒᆞᄂᆞᆫᄃᆞ <화소35, 16:17-18>

---

6)『화엄경소』에 (15)의 '爲' 대신 '名'이 사용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타난다.
ㄱ. {是}ㅣ乙 名下 菩薩摩訶薩尸 五ᄒᆞ 第ᄀᆡ 多聞藏ᄉᆞᄂᆞᆫᄒᆞᄂᆞᆫᄃᆞ <화소35, 09:03-04>
ㄴ. {是}ㅣ乙 名下 菩薩摩訶薩尸 八 第ᄀᆡ 念藏ᄉᆞᄂᆞᆫᄒᆞᄂᆞᆫᄃᆞ <화소35, 23:17-18>
ㄷ. {是}ㅣ乙 名下 菩薩摩訶薩尸 九 第ᄀᆡ 持藏ᄉᆞᄂᆞᆫᄒᆞᄂᆞᆫᄃᆞ <화소35, 24:16>

7) 황선엽(2002: 164-167)은 석독구결의 '尸'이 화법 구문과 사유 구문에서 연결어미로 사용된 예만을 다루었다. 그러나『화엄경소』의 명명 구문에 사용된 '{爲}ᄂᆞᆫᄆᆞ尸'의 '尸'도 연결어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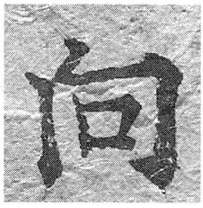
ㄴ. {是}ㅣㄹ {爲}ㅅㅁ尸 菩薩摩訶薩尸 七 第七 慧藏ㅣㅅㅁㄹㅎ禾ㄱ ㅣ <화소35, 20:03-04>

ㄷ. {是}ㅣㄹ {爲}ㅅㅁ尸 菩薩摩訶薩尸 十尸 第七 辯藏ㅣㅅ禾ナㅣ <화소35, 26:03>

ㄹ. {是}ㅣㄹ {爲}ㅅㅁ尸 十尸 種七 無盡法ㅣ 能ㅊ 一切世間七 作ㅅㄱ 所ㄹ 悉ㅋ 得ㅋㅎ 究竟 令ㅣナ令七 無盡大藏ㅣㅅ禾ナㅣ <화소35, 26:19-20>



[그림310] 예문(14)



[그림311] 예문(16ㄱ)

한편, 주본『화엄경』의 14(·ㅣ)은 'ㅂ尸'로 해독할 수 있을 듯하다. 14(·ㅣ)은 41(··)이나 45(··) 외에 (16)처럼 조건문에 15(·)과 함께 기입된 예가 많아 'ㅅㄱ' 앞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토석독구결은 (17)처럼 '-ㅅㄱ 則' 앞에는 'ㅂ禾尸'과 'ㅂㅎ尸'의 예 하나씩을 제외하면 모두 'ㅂ尸'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14(·ㅣ)을 형태와 의미가 단순하고 빈도가 훨씬 높은 'ㅂ尸'로 해독하고자 한다.[8]

(16) ㄱ. 若[25(·)]人[24(ㅣ)]知此[41(·),43(ㅣ)]而[45(·)]迴向[14(·ㅣ),15(·)]則[24(·)]與彼佛[25(·)]行平等[31(⌐),51(·/)] <주본화엄31, 21:01>

ㄴ. 若[25(·)]人[24(ㅣ)]能[24(·)]修此迴向[41(·),14(·ㅣ),15(·)]則[24(·)]爲學佛[35(·)]所行[25(·)]道[41(·),12(·ㅣ),24(ㅣ),11(·),31(\),21(·ㅣ)] <주본화엄31, 21:02>

8) 진본『화엄경』의 14(.·)도 'ㅂ尸'로 해독할 수 있을 듯하다.

(16′) ㄱ. 若ㄷ 人ㅣ 此乙 知(ㅋ)ホ 而ᅳ 迴向(ソ)ヒ尸入ㄱ 則ᄎ 彼 佛(乙) 與ㄷ 行 平等xヲ ㅋ ㄷ分

ㄴ. 若ㄷ 人ㅣ 能ᄎ 此 迴向乙 修(ソ)ヒ尸入ㄱ 則ᄎ {爲} 佛ᄉ 所行 ㄷ 道乙 學xㄱ ㅣ ㅅ xヲ ㅁ

(17) ㄱ. 若 能 佛乙 念ソ白ㄱ尸ム 心ㅎ 動尸 不ソヒ尸入ㄱ 則 常ㅣ 量無ㅎㄱ 佛乙 覩見ソ白ヒヲ分 <화엄14, 11:13>

ㄴ. 若 能 勤火ㄷ 佛功德乙 修ソヒ尸入ㄱ 則 得ㅋ ホ 如來尸 家ㅋ 十生在ソヒヲ分 <화엄14, 11:05>

ㄷ. 若 {於}十方ㄷ 諸ㄱ 佛矢 所 灌頂 受 而 鼎位 {應}ㄷソヒヲ尸入ㄱ 則 十方ㄷ 一切佛ㅣ 手以甘露灌其頂 蒙ヒヲ分 <화엄14, 14:03-04>

ㄹ. 若 一切 佛 其前 現ヒㅎ尸入ㄱ 則 神通深密用乙 了ソヒヲ分 <화엄14, 12:16>

2.3. 12와 14 위치의 동형성

2.1에서 보았듯이, 12(ㅣ)과 14(ㅣ)은 점토의 모양이 같고 동일한 선어말어미를 포함한 자토와 대응된다. 2.2에서 해독한 12(-)도 박진호(2004)에서 해독한 14(-)과 선어말어미가 같다. 이러한 관련성을 이 글에서는 '동형성(同形性, homology)'으로 부르기로 한다. 박진호(2003・2004)는 12와 14 위치의 동형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2와 14 위치의 점토들 가운데 동형성이 존재하는 것은 [표1]과 같다.[9]

9) 이 밖에 12(·ㅣ)와 2.3에서 'ヒ尸'로 해독한 14(·ㅣ)도 대칭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주본『화엄경』에서 12(·ㅣ)은 세 곳에 기입되어 있는데, 'ㅅ' 앞에 나타난 예와 '不矢-' 앞에 나타난 예가 하나씩 있어서 자토석독구결의 'ヒㄱ'과 분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12(·ㅣ)과 자토석독구결의 'ヒㄱ'의 예가 적어서 해독의 근거가 부족하다.

위치(모양)	해독 결과	위치(모양)	해독 결과
12(·)	ㄱ	14(·)	尸
12(··)	ㅎㄱ	14(··)	ㅎ尸
12(:)	ㅅㄱ	14(:)	ㅅ尸
12(·.)	ㅱㄱ	14(·.)	ㅱ尸
12(-)	ㅏㄱ	14(-)	ㅏ尸
12(l)	ㅎㅱㄱ	14(l)	ㅎㅱ尸

[표1] 12와 14 위치에서 동형성을 보이는 점토들

그러나 2.2에서 'ㅎㅁㄱ'으로 해독한 12(!)나 2.3에서 'ㅁ尸'로 해독한 14(.·)는 동형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12와 14 위치의 점토들 가운데 동형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표2]와 같다.

위치(모양)	해독 결과	위치(모양)	해독 결과
12(.·)	ㅏㅱㄱ?	14(.·)	ㅁ尸
12(!)	ㅎㅁㄱ	14(!)	ㅐ尸 (권22)
12(i)	ㅎㅁㄱ?	14(i)	ㅐ尸
12(/)	xㄱ		
12(-)	xㄱ		
12(-)	xㄱ		

[표2] 12와 14 위치에서 동형성을 보이지 않는 점토들

[표2]의 점토들이 동형성을 보이지 않는 데에는 문자론적인 요인이 관련된 듯하다. 선어말어미와 동명사어미 '-ㄱ'이 통합된 형태는 대부분 12 위치의 점토에 대응되나 'ㅁㄱ'과 'ㅐㄱ'은 각각 32(·)과 42(/)에 대응되기 때문에,[10] 'ㅁ尸'과 'ㅐ尸'에 대응되는 14(.·)와 14(!)/14(i)가 동형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태적 빈칸 때문에 동형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2(.·)은 분명한 해독은 어려우나 'ㅏㅱㄱ' 또는 'ㅅㄱ'이 아닌가 싶은데, 'ㅏㅱ尸' 또는 'ㅅ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0) 32(·)을 'ㅁㄱ'으로 해독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은 별도의 논문으로 미룬다.

동형성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아직 해독되지 않은 12(/)과 12(ㅗ)과 12(ㅜ)은 14(/)과 14(ㅗ)과 14(ㅜ)의 예가 보이지 않으므로 형태적 빈칸일 가능성이 있으나, 우연한 빈칸일 수도 있다.

3. 51과 55 위치의 점토들의 해독

3.1. 51(·/)과 55(\·)의 해독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체계는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다. 특히 15세기의 '-시-'와 '-숩-'으로 이어지는 주체높임의 'ㅎ'와 객체높임의 '白'이 존재하는 데 비해, 15세기의 '-이-'로 이어지는 형태는 찾기 어렵다. 이승재(1998: 54-58, 63)에서는 석독구결에서 상대높임의 범주를 인정하지 않고 'ㅁㅌ'과 'ㅁㄹ'과 'ㅋㅌ'을 강조의 선어말어미로 파악하였고, 장윤희(1998: 52)에서는 'ㅋㅌㅣ'에는 상대높임의 의미가 없고 'ㅋㅌㅁ'에는 상대높임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며, 박진호(1998: 152-162)에서는 'ㅁ'와 'ㅋㅌ'을 상대높임의 선어말어미로 보았다.

이처럼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 글에서는 박진호(1998)을 따라 'ㅋㅌ'을 상대높임의 선어말어미로 보기로 한다. 'ㅋㅌ'은 대부분 연결어미 'ㅎ', 종결어미 'ㅣ'나 'ㅁ'와 통합되어 'ㅋㅌㅎ', 'ㅋㅌㅣ', 'ㅋㅌㅁ'의 형태로 나타난다. 'ㅋㅌㅎ'와 'ㅋㅌㅣ' 앞에는 동명사어미와 계사가 통합된 'ㄱㅐ' 또는 'ㅈ'가 나타나는데,[11] 주본『화엄경』에서 이러한 분포를 보이는 점토는 51(·/)과 55(\·)이다. (18ㄱ~ㄴ)은 51(·/)이 기입된 예들이고, (18ㄷ~ㄹ)은 55(\·)이 기입된 예들이다. (18ㅁ)은 51(·/)과 55(\·)가 접속문의 앞문장과 뒷문장에 사용된 예이다.

---

11) '未ㅐㅅㅋㅌㅣㅅㄱ'<금광3, 06:23-24>이 유일한 예외이다.



[그림312] 예문(18ㄱ)



[그림313] 예문(18ㄴ)

(18) ㄱ. 有[24(|)]生[12(:),45(··)]故[24(·)]有生[11(·)]老死憂悲苦惱[11(·),13(/),34(·)]如是[24(·)]衆生[33(·)]生長苦[25(·)]聚[53(·),12(\),51(·/)] <주본화엄34, 14:21-22>

ㄴ. 承佛威神觀察十方而說頌曰一切諸[33(·)]如來[33(·)]遠離於衆[33(·)]相[41(·),12(··),24(|),55(\·),23(|)] <주본화엄06, 18:08-10>

ㄷ. 衆生[23(-)]所有[33(/),33(·),25(·)]音[11(·)]及[25(·)]佛[35(·)]自在聲[11(·),13(/),21(|·)]獲得音聲智[41(·),12(-),24(|),43(·)]一切[25(:)]皆[25(·)]能[24(·)]了[31(:),51(·/)] <주본화엄06, 18:06>

ㄹ. 所謂唱言[21(|)]我[33(·)]當[23(:)]必定[23(\)]成正等覺[14(:),41(··),31(|·),55(\·)]是[41(·)]菩提心[25(·)]大師子吼[11(·),31(|),51(·)] <주본화엄57, 19:15-16>

ㅁ. 能[24(·)]於諸[33(·)]佛身[53(·)]一一[33(·),53(-),43(\),55(·)]而[45(·)]觀察[13(··)]色[11(·)]聲[11(·),13(/),53(|)]無所礙[14(·),25(·),24(|),43(·)]了達於諸[33(·)]境[41(·),31(:),51(·/)]能[24(·)]於諸[33(·)]佛身[53(·),23(|)]安住智[25(·)]所行[53(·),12(-),43(·)]速[24(|)]入如來[44(·)]地[53(·),43(|)]普[24(|)]攝於法界[41(·),31(:),55(\·)] <주본화엄06, 20:04-05>

(18′) ㄱ. 有ㅣㅣ 生ㅅㄱㅅㅠ 故ㅈ 生ㅅ 老(ㅅ) 死(ㅅ) 憂(ㅅ) 悲(ㅅ) 苦惱ㅅ ㅅ仝 有ㅁ 是 如ㅈ 衆生ㄱ 苦ㅂ 聚十 生長xㄱ(ㅣ)ㅎㅂㅅ

ㄴ. 佛(ㅂ) 威神 承(ㅣ白ㅎ) 十方(乙) 觀察(ㅅㅁ) 而(ㅠ) 頌(乙) 說(ㅎ) 曰(白ㅎ尸) 一切 諸ㄱ 如來ㄱ {於}衆ㄱ 相乙 遠離(ㅅ)ㅎㄱ ㅣㅣㅎㅂㅣㅅㅎ

ㄷ. 衆生ㅋ {有}ㅛ(ノ)ㄱ 所ㄴ 音ㅣ 及ㄴ 佛ㄷ 自在聲ㅣノ仝火 音聲 智乙 獲得(ン)ナㄱㅐㅔ 一切之ㄴ 皆ㄴ 能ㅊ 了x干ㅋㄴ分

ㄹ. 謂(ノㄱ) 所(ㄱ) 唱言(ン)ナ尸丁 我ㄱ 當ㅅ 必定ㅈ 正等覺ノ尸 入乙 成x干ㅋㄴㅣ 是乙 菩提心ㄴ 大師子吼ㅣ x干分

ㅁ. 能ㅊ 諸ㄱ {於}佛身十 一一ㄱ乃ヤㅣ 而ㅟ 觀察xム 色ㅣ 聲ㅣノ仝ㅋ十 礙尸 所 無ㄴ(ㄱ)ㅐㅔ {於}諸ㄱ 境乙 了達x干ㅋㄴ分 能ㅊ 諸ㄱ {於}佛身十ンㅋ 智ㄴ 所行十 安住(ン)ナㄱ(ㅐ)ㅔ 速ㅐ 如來尸 地十 入(ㅋ)ホ 普ㅐ {於}法界乙 攝x干ㅋㄴㅣ

(19) ㄱ. 以ㅋホ 彼ㅋ十 施ㅋハ 其 願乙 充滿ㅅㅐマ方{應}ヒソㄱㅐㅔㅋㄴ分 <화소35, 16:12>

ㄴ. 一切 榮盛ンㄱカ 必當ンㅋ 衰歇ンム未ㅋㄴ分 {於}衰歇ンムヒㄴ 時ㅐ十尸入ㄱ <화소35, 11:12-13>

ㄷ. {於}彼 諸 欲ㅋ十 愛樂乙 生ㅐトㄱㅐㅔㅋㄴㅣノ尸入乙 知ナㄱ入ㅟ 故ノ <유가20, 20:12>

ㄹ. 願ロ尸入ㄱ 我ㄱ {於}身ㅋ十 永ム 貪著乙 斷ノ未ㅋㄴㅣンナ尸 入乙 <화소35, 09:19>

ㅁ. 我ㅋ 身方弋 充樂ンㅔ 彼カ 亦ンㄱ 充樂ンㅈ未ㅋㄴ分 我ㅋ 身方弋 飢苦ンㄱㅣ十ㄱ 彼カ 亦ンㄱ 飢苦ン未ㅋㄴㅣ <화소35, 09:14-15>

51(·/)과 55(\·)은 (18ㄱ~ㄴ) 외에 2.2의 (12ㄱ~ㄴ)에서 본 바와 같이 'ㅋㅁㄱ'에 대응되는 12(!)과 함께 기입된 예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도 모두 'ㄱㅐㅔ' 뒤에 'ㅋㄴ分' 또는 'ㅋㄴㅣ'가 통합된 예에 포함된다. 한편 51(·/)과 55(\·)은 (18ㄷ~ㄹ)처럼 31 위치의 점토와 함께 나타나는 예도 많다. 51(·/)은 권6에서 31(\)과 31(:), 권22에서 31(·|), 권31에서 31(|)과 함께 기입된 예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자토석독구결의 'ㅋㄴ分'와 'ㅋㄴㅣ'는 대부분 사유 구문에 사용되어 'ㅋㄴ口'에 비해 상대높임의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2.2의 (13)은 師子相無礙光焰菩薩이 부처에게 하는 게송에

사용되었으므로 분명한 상대높임의 예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점토석독구결의 51(·/)과 55(\·)도 대부분 사유 구문에 사용되었으나, 2.2의 (12ㄴ)은 분명한 상대높임의 예로 볼 수 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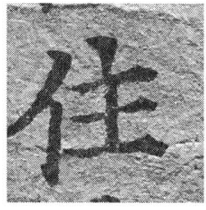
박진호(2003·2004)는 55(\·)을 'ᄒᆞ'로 해독하였고, 박진호(2003)은 55(\·) 앞에 나타나는 31(··)을 21~31(··)로 판독하고 'ㅁㄹ'로 해독하였는데, 이는 55(\·)가 가진 상대높임의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1(·/)과 55(\·)이 접속문으로 연결된 예들, 2.2에서 제시한 12(!)와 55(\·)이 함께 현토된 예들, 21~31(··)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13] 등을 고려하면 55(\·)은 'ᄒᆞᄉᆡ'로 해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51(.·)과 55(·.)의 해독

주본『화엄경』의 51(.·)과 55(·.)은 (20)의 예들을 비롯하여 주어가 존칭체언일 때 사용되므로, 각각 'ᄒᆞ샤'와 'ᄒᆞ ᅵ'로 해독할 수 있다.



[그림314] 예문(20ㄴ)



[그림315] 예문(20ㅁ)

12) 또 (18ㄴ)처럼 권6에는 一切法勝音菩薩과 보살 대중들이 부처 앞에서 게송으로 말하는 장면이 길게 이어지는데, 게송에 계속 51(·/)와 55(\·)이 사용된다.

13) 무엇보다 21~31(··)으로 판독했던 점토들을 사진에서 확인하면 대부분 전형적인 31 위치이다. 이 밖에 주본『화엄경』은 위치가 세분되지 않기 때문에 21~31(··)만 예외로 두기 어려운 점, 박진호(2003)처럼 21(··)로 처리하면 박진호(2004)에서 21(··)을 'ㄱㅜ'로 해독한 것과 충돌한다는 점, 해당 점토가 사용된 예들은 자토석독구결의 'ㅁㄹ'이 사용된 예들과 달리 미래 시제로 해석되는 점에서도 기존의 21~31(··)은 31(··)로 해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 ㄱ. 爾時[53(·)]世尊[33(·)]於一切寶莊嚴殿[25(·.)]摩尼寶藏師子座上[53(·),23(ㅣ)]結跏趺坐[13(ㅣ)]法身淸淨[51(.·)]妙用自在[51(.·)]與三世[25(·)]佛[41(·),25(·)]同一[33(·)]境界[53(·),51(.·)] <주본화엄22, 21:15-17>

ㄴ. 一一[33(·)]刹[25(·)]中[53(·),43(\),55(·)]皆[25(·)]有三世[25(·)]諸[33(·)]佛[35(·),24(ㅣ),14(··)]世尊[33(··),51(.·)] <주본화엄06, 11:13-14>

ㄷ. 於彼如來[44(·)]大衆海[25(·)]中有菩薩摩訶薩[33(··),55(·.)]名[33(·)]觀察勝法蓮華幢[11(·)-중복선,31(··)] <주본화엄06, 04:07-09>

ㄹ. 又[33(·)]照十方[25(·)]一切世界[25(·)]一切諸[33(·)]佛[35(·)]所加[12(ㅣ),25(·)]說法[25(·)]菩薩[44(·)]之身[41(·),24(ㅣ),45(-),51(.·)]作是事[41(·),14(:)]已[43(·),34(·),12(:)]於上虛空[25(·)]中[53(·)]成大光明雲網臺[43(ㅣ)]而[45(·)]住[45(-),55(·.)] <주본화엄34, 07:13-16>

ㅁ. 此華[24(ㅣ)]生[44(·)]已[43(·),34(·),12(:)]一念[25(·)]之間[53(·)]於如來[44(·)]白毫相[25(·)]中[53(·)]有菩薩摩訶薩[33(··),55(·.)]名[33(·)]一切法勝音[11(·)-중복선,31(··)]與世界海微塵數[25(·)]諸[33(·)]菩薩衆[41(·),25(·),23(ㅣ)]俱[25(·),12(:)]時[11(·),53(·)]而[45(·)]出[51(.·)]右[34(ㅣ),45(·)]遶如來[41(·),13(:)]經無量帀[41(·),34(ㅣ),51(.·)]禮佛足[41(·),34(-),44(·)]已[43(·),34(·)]時[53(·)]勝音菩薩[33(·)]坐蓮華臺[53(·),51(.·)]諸[33(·)]菩薩衆[33(·)]坐蓮華鬚[53(·),23(ㅣ)]各[43(ㅣ)]於其上[11(·),53(·)]次第[45(·)]而[45(·)]住[45(-),55(·.)] <주본화엄06, 14:11-15>

(20′) ㄱ. 爾 時十 世尊ㄱ {於}一切 寶莊嚴殿ㅋㅏ 摩尼寶藏師子座 上十ㅅㅋ 結跏趺坐ㅈㅁ 法身 淸淨(ㅅ)ㅎㄱ 妙用 自在(ㅅ)ㅎㄱ 三世ㅏ 佛ㄹ 與ㅏ 同一(ㅅ)ㄱ 境界十(ㅅ)ㅎㄱ

ㄴ. 一一ㄱ 刹ㅏ 中十ㅇㅣ 皆ㅏ 三世ㅏ 諸ㄱ 佛ㅎㅣㅎㄹ 世尊 有ㄷ(ㅅ)ㅎㄱ

ㄷ. {於}彼 如來ㄹ 大衆 海ㅏ 中(十) 菩薩摩訶薩 有ㄷ(ㅅ)ㅎㅣ 名ㄱ 觀察勝法蓮華幢ㅋㅅㅊㅋ

ㄹ. 又(ㅅ)ㄱ 十方ㅏ 一切 世界ㅏ 一切 諸ㄱ 佛ㅎ 加(ㅅ)ㅎㄱㄱ 所

ㅌ 說法ㅌ 菩薩ㅣ{之} 身ㄹ 照ㅢㅌ(ㅅ)ㅎㄱ 是 事ㄹ 作ㅅㅣ 已ㅑ(ㅅ)ㄹㅅㄱ {於}上虛空ㅌ 中十 大光明雲網臺 成(ㅎ)ㅗ 而ㅱ 住(ㅅ)ㅌ(ㅅ)ㅎㅣ

ㅁ. 此 華ㅢ 生ㅣ 已ㅑ(ㅅ)ㄹㅅㄱ 一念ㅌ{之} 間十 {於}如來ㅣ 白毫相ㅌ 中十 菩薩摩訶薩 有ㄴ(ㅅ)ㅎㅣ 名ㄱ 一切法勝音ㅣㅅㅓㅣ 世界海 微塵數ㅌ 諸ㄱ 菩薩衆ㄹ 與ㅌㅅㅎ 俱ㅌㅅㄱ 時ㅣ十 而ㅱ 出(ㅅ)ㅎㄱ 右ㅎㅱ 如來ㄹ 遶xㅁ 無量 帀ㄹ 經ㅎㅎㄱ 佛 足ㄹ 禮(ㅅ)白ㅣ 已ㅑ(ㅅ)ㅁ 時十 勝音菩薩ㄱ 蓮華臺十 坐(ㅅ)ㅎㄱ 諸ㄱ 菩薩衆ㄱ 蓮華鬚十 坐ㅅㅎ 各(ㅎ)ㅗ {於}其 上ㅣ十 次第ㅱ 而ㅱ 住(ㅅ)ㅌ(ㅅ)ㅎㅣ

(21) ㄱ. 何ㅁ {等}ㅣㅅㅎㄱ 如來ㅢ 最ㅅ 後ㅢ十 出ㅅㅎㄱ <화소35, 0801-02>

ㄴ. 各ㅋ各ㅋㅎㅗ 座前ㅌ 花ㅱㅌ 上十 量 無ㅌㄱ 化佛ㅢ 有ㄴㅅㅌㄱ <구인上, 02:03>

ㄷ. 其 花ㄱ 上ㅅㄱ 非想非非想天ㅎ十 至ㅎ 光ㄲ 亦ㅅㄱ 復ㄹ 爾ㅌㅎㅅㅌㄱ 乃ㅑ 他方 恒河沙ㅌ 諸ㄷㄱ 佛ㅌ 國土ㅎ十 至ㅢㅅㅌㅂㅌㅣ <구인上, 02:13-14>

주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서 51(.·)은 (20ㄱ)과 (20ㅁ)처럼 단독으로 현토되기도 하고 (20ㄴ)과 (20ㄹ)처럼 45(-)이나 33(··)과 함께 현토되기도 하지만, 55(·.)은 33(ㄷ~ㅁ)처럼 45(-)이나 33(··)과 함께 현토된 예만 보인다.[14] 20(ㄹ)은 '45(-),51(.·)'과 '45(-),55(·.)'이 연결되는데 비해 (20ㅁ)은 '33(··),55(·.)'와 '45(-),55(·.)' 사이에 '51(.·)'으로만 연결되고 있다. 51(.·)과 55(·.)의 이러한 차이는, (21)처럼 자토석독구결에서 'ㅎㄱ/ㅋㄱ'는 그 앞에 다른 선어말어미 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ㅋㅣ'는 그 앞에 'ㅌㅂ'가 통합된 예만 나타나는 점과 관련되는 듯하다.

14) 주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33(··)과 45(-)은 각각 자토석독구결의 'ㅅ'와 'ㅌ'에 대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33(··)과 45(-)을 해독하는 방안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별도의 논문으로 미룬다.

3.3. 51(·.)의 해독

박진호(2003・2004)에서는 51(·.)은 'xか'로 55(.·)은 'ナ ㅣ'로 해독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51(·.)을 'ナか'로 해독하고자 한다. (22)에서 보듯이 51(·.)은 화법 구문이나 사유 구문에서 피인용문 뒤에 오는 상위문 동사 'ン-'에 현토되는 예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자토석독구결에서는 'ンか' 외에 (23)처럼 'ンナか'가 나타나는 예가 많다.

(22) ㄱ. 如是[12(:)]苦[25(·)]衆生[41(·)]我[33(·)]今[12(:)]應救脫[25(·),12(:),55(\·),51(·.)] <주본화엄34, 20:05>



[그림316] 예문(22ㄱ)

ㄴ. 獨一[23(\)]發心[11(/)]不求伴侶[41(·),44(·),31(··),55(\·),51(·.)] <주본화엄36, 10:01>

ㄷ. 願[15(·)]得十力[41(·),43(|)]救衆生[41(·),31(··),55(\·),51(·.)] <주본화엄36, 14:23>

(22′) ㄱ. 是 如(ま)ン 苦ヒ 衆生乙 我 今ン 救脫(ノヤ){應}ヒン(刂)ミヒ(ン)ナか

ㄴ. 獨一ち 發心(ン)ナ仝ミ 伴侶乙 求尸 不ノヲミヒ(ン)ナか

ㄷ. 願入 十力乙 得(ミ)ホ 衆生乙 救ノヲミヒ(ン)ナか

(23) ㄱ. 當ハ 不堅ン 入乙 以ミハ 而〻 堅ンヒヒ 法乙 求ノホミヒンナか <화소35, 12:03>

ㄴ. 我 今ン 永ム 貪愛乙 捨ン{爲欲}人 {此}刂 一切 必ハ 離散ンム仝ヒ 物ヒ乙 以ミハ 衆生ヲ 願乙 滿ヘリヲホミヒンナか <화소35, 12:16-17>

ㄷ. 然ミンカ {此}刂 法 {者} 處所 有ヒヿヒ 非矢か 處所 無ヒヿヒ 非矢か 內 非矢か 外 非矢か 近 非矢か 遠 非矢ヿリミヒンナか <화소35, 13:20-14:02>

3.4. 51과 55 위치의 대칭성

3.1에서 'ᄀᆞᄂᆞᆫ'와 'ᄀᆞᄂᆡ'로 해독한 51(·/)과 55(\·)은 모양이 대칭적이면서 동일한 선어말어미를 포함한다. 3.2에서 'ᄒᆞᆫ'와 'ᄒᆞᅵ'로 해독한 51(.·)과 55(·.), 3.3에서 'ᄂᆞᆫ'로 해독한 51(·.)과 55(.·)도 같은 관련성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51과 55 위치의 점토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관련성을 12와 14 위치의 점토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동형성'과 구분하여 '대칭성(對稱性, symmetry)'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대칭성을 보이는 51과 55 위치의 점토들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15]

---

15) 이 밖에 51(/)과 55(\)은 지금은 해독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대칭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 앞에 다른 선어말어미나 동명사어미가 나타나지 않는 점, '(ㅅ)ㅐ'나 'ㅁ'나 'ᄒᆞ' 뒤에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 공통된다. 또 51(\·)과 55(·/)은 ㄱ처럼 사용되었는데, 자토석독구결에서 ㄴ처럼 1인칭 주어가 보살일 때 'ᄒᆞᄆᆞᆫ'가 사용된 예가 있는 점과 한자 우측에 'ㄷ'로 시작하는 구결자가 기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ㄱ'처럼 각각 'ᄒᆞᄆᆞᆫ'와 'ᄒᆞᄆᆞᅵ'로 해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55(·/)이 54 위치에 더 가까워 54(·/)으로 판독될 수도 있으므로, 51(\·)과 55(·/)에 대칭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ㄱ. 我[33(·)]於世間[53(·)]最勝第一[51(\.)]我[33(·)]當[23(:)]永[24(/)]盡生死[25(·)]邊際[41(·),34(|),14(·.),41(··),55(·/)] <주본화엄57, 20:08-10>

ㄱ'. 我ㄱ {於}世間十 最勝 第一(ㅐ)ᄒᆞᄆᆞᆫ 我ㄱ 當ㅅ 永ㅌ 生死ㄷ 邊際ㄹ 盡}ㅇ尸入ㄹ(ㅅ)ᄒᆞᄆᆞᅵ

ㄴ. 我ㄱ 今ㅅㄱ 盛壯ㅅᄒᆞᄆᆞᆫ 當ᄆᆞㄱㅁㄱ 天下ㄹ {有}ㅓᄒᆞᄆᆞᆫ <화소12:02-03>

그리고 박진호(2003·2004)에서 'ㅐᆫ'로 해독한 51(/·)과 대칭성을 보이는 55(·\)는 주본『화엄경』권36에 유일한 예가 보이는데, 'ㅐᅵ'로 해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51(/·)은 대부분 사동접사나 계사 'ㅐ'를 포함한 것에 비해 55(·\)은 의존명사 'ㅐ'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55(·\)는 이점본(移點本)에 따라 55(\·)로 판독될 수도 있으므로, 역시 해독 및 대칭성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러한 대칭성은 51과 55 위치의 점토들 사이에만이 아니라 11과 51 위치의 점토들 사이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11(·.)은 주어가 존칭 체언일 때 나타나므로 'ᄒᆞᄀᆞᄉᆞ'로 해독할 수 있고, 11(\·)은 사람을 가리키는 의존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ㅐᄉᆞ'로 해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치(모양)	해독 결과	위치(모양)	해독 결과
51(·)	分	55(·)	丨
51(.·)	ㅎ分	55(·.)	ㅎ丨
51(·.)	ナ分	55(.·)	ナ丨
51(·/)	氵七分	55(\·)	氵七丨

[표3] 51과 55 위치에서 대칭성을 보이는 점토들

2.4에서 다룬 12와 14 위치에서 동형성을 보이는 점토들의 모양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직선, 수평선, 수직쌍점, 수평쌍점 등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51과 55 위치에서 대칭성을 보이는 점토들의 모양은 대부분 사선, 역사선, 사향 쌍점, 역사향 쌍점, 사선 눈썹 등 대각 방향으로 그려져 있다. 이처럼 점토의 모양도 동형성과 대칭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12와 14 위치의 일부 점토들은 동형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51과 55 위치의 일부 점토도 대칭성을 보이지 않는 듯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박진호(2003·2004)에서 'ナ方七丨'로 해독된 55(/)는 기입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반면, 51(\)는 주본『화엄경』 권34에 유일례가 있는 듯하고 판독이나 해독이 불분명하다. 자토석독구결에 'ナ方七分'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형태적 빈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토석독구결에 'ナ方七人{雖}斗'의 예가 있으므로 'ナ方七分'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연한 빈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 아직 해독되지 않은 55(/)도 51(`\)이 보이지 않으므로 형태적 빈칸일 가능성이 있으나, 우연한 빈칸일 가능성도 있다. 51과 55 위치의 점토들 가운데 현재 대칭성을 발견할 수 없는 예들은 [표4]와 같다.

위치(모양)	해독 결과	위치(모양)	해독 결과
		55(/)	ナ方七丨
		55(/)	x丨

[표4] 51과 55 위치에서 대칭성을 보이지 않는 점토들

4. 맺음말

주본『화엄경』의 12와 14 위치의 점토들에서 발견되는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의 점토들에서 발견되는 대칭성은 주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이 상당히 체계적인 표기법임을 증명한다. 12와 14 위치 및 51과 55 위치의 점토들은, 어말어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위치로 나타내고 선어말어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동형적인 또는 대칭적인 모양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위치와 모양이라는 자질들을 최소로 사용하여 점토들을 변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 체계는 암기하는 데도 매우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형성과 대칭성을 통해 당시의 문법 의식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현대 한국어에 대한 직관으로는 'ᄉᆞ'를 'ㅅ'나 'ㅁ'나 'ㅎ' 등과 연결어미로 범주화하고 'ㅣ'를 'ㅁ'나 'ㅊ' 등과 종결어미로 범주화한 후,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위치와 모양을 보면 고안자는 'ᄉᆞ'를 'ㅅ'나 'ㅁ'나 'ㅎ'와는 별다른 관련을 짓지 않고 'ㅣ'와만 대립적으로 관련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ㅅ'나 'ㅁ'나 'ㅎ'가 선어말어미와의 통합이 매우 제약된 반면, 'ᄉᆞ'는 'ㅣ'와 마찬가지로 시상이나 서법이나 높임법 등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비교적 제약없이 통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점토석독구결의 고안자가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점토석독구결에서 51과 55 위치로 'ᄉᆞ'와 'ㅣ'를 표시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51과 55 위치는 주본『화엄경』 및 진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서 각각 'ᄉᆞ'와 'ㅣ'로 끝나는 점토를 표시하며,『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서 각각 'ㅣ'와 'ᄉᆞ'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51과 55 위치는 한자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며, 한문에서 구두점이 표시되는 위치이기도 하다. 'ᄉᆞ'나 'ㅣ'는 시상이나 서법이나 높임법까지 포함

한 의미의 단위를 맺어준다는 점에서 당시의 문장 개념과도 관련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점토석독구결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정밀한 해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金永旭(2003),「周本 華嚴經 卷三十六의 口訣」,『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 태학사, 133-154.

南豊鉉(1996),「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국어학』 28, 1-48.

南豊鉉(2003),「周本 華嚴經 卷六의 角筆 點吐釋讀口訣 硏究」,『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 태학사, 41-53.

박진호(1998),「고대 국어 문법」,『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 고대국어 -』,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박진호(2003),「周本『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 - 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구결연구』 11, 211-247.

박진호(2004),「周本『華嚴經』 卷第六의 點吐 重複 表記와 符號」,『구결연구』 13, 129-148.

朴鎭浩(2006),「晉本『華嚴經』 卷第20의 點吐 解讀」,『구결연구』 16, 173-208.

서민욱(2005),「『瑜伽師地論』 卷5·8의 點吐口訣 硏究」, 가톨릭대 박사논문.

尹幸舜(2003),「周本 華嚴經 卷第二十二에 대하여」,『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 태학사, 55-71.

이승재(1998),「고대 국어 형태」,『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 고대국어 -』, 국립국어연구원, 41-75.

李丞宰(2001),「周本『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구결연구』 7, 1-32.

이승재(2003),「주본『화엄경』 권 제57의 서지와 각필 부점구결에 대하여」,『한글』 262, 215-246.

李丞宰 外(2005),『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 - 初雕大藏經의『瑜伽師地論』 卷第五·卷第八 -』, 태학사.

李丞宰 外(2006ㄱ),『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 - 周本『華嚴經』 卷第三十六 -』,

태학사.
李丞宰 外(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 - 周本『華嚴經』 卷第六·卷第五十七 -』, 태학사.
장경준(2002),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 『구결연구』 9, 205-225.
장경준(2003),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지시선'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189-209.
장경준(2005ㄱ),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 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 연세대 박사논문.
장경준(2005ㄴ), 「점토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 李丞宰 外(2005) 수록, 127-141.
장윤희(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 서울대 박사논문.

〔405-731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동아아파트 3동 401호〕
E-mail: sumsori@hanmail.net
접수일자: 2007. 12. 20.
게재결정: 2008. 01. 23.

Decipherments of code *kugyol* in Zhouben *Huayanjing*(1)

- On the homology between positions 12 and 14, the symmetry between positions 51 and 55 -

Ahn, Dae-hyeon

The positions of code *kugyol* markings on a Chinese character in a Chinese text can be indicated by a grid of twenty-five squares, in which each square is a position that is identified by a two digit numb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cipher code *kugyol* markings written in positions 12 and 14 as well as positions 51 and 55 of Chinese characters in Zhouben *Huayanjing*, It will also be demonstrated, based on decipherments, that 'homology' exists between positions 12 and 14, while 'symmetry' exists between positions 51 and 55. This homology and symmetry is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s:

position(shape)	decipherments	position(shape)	decipherments
12(·)	ㄱ	14(·)	尸
12(··)	ㅎㄱ	14(··)	ㅎ尸
12(:)	ㅅㄱ	14(:)	ㅅ尸
12(·.)	ㅁㄱ	14(·.)	ㅁ尸
12(-)	ナ ㄱ	14(-)	ナ 尸
12(|)	ㅎㅁㄱ	14(|)	ㅎㅁ尸

position(shape)	decipherments	position(shape)	decipherments
51(·)	分	55(·)	丨
51(.·)	ㅎ分	55(·.)	ㅎ丨
51(·.)	ナ分	55(.·)	ナ丨
51(·/)	ㅋヒ分	55(\·)	ㅋヒ丨

These relations of position and shape show that the code *kugyol* markings in Zhouben *Huayanjing* are systematic. They also reflect the fact that the scholars of that time had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grammatical structure.

*Key words: Zhouben *Huayanjing,* code *kugyol*, letter *kugyol*, homology, symmetry.